

세계 IT시장을 선도하는 고품질 디지털 제품

세계 최대 102" PDP TV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브라운관, LCD, 프로젝션, DLP 방식을 통틀어 현재까지 세상에 나온 TV중 가장 큰 102" PDP TV를 전시한다.

가로 2,310mm, 세로 1,325mm로 탁구대 크기 만한 102" PDP TV는 풀 HD급(1920×1080) 해상도를 갖춘 1,000칸델라(cd/m²)의 밝기와 2,000대1의 명암비를 구현해 화면이 커질수록 어둡고 명암이 또렷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깬다.

102" PDP TV는 대형 회의실, 쇼핑몰, 공항, 소극장 등의 상업용 무빙시어터로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세계 TV산업의 선도기업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매출액 등 숫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대' 등의 수식이 붙는 제품들을 잇달아 개발, 시장에 선보이며 명실상부하게 업계 최고 기업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102" PDP TV는 올초 미국 라스베이저스에서 열린 '2005년 소비자 가전쇼(CES)'에서 첫 선을 보였고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IFA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하드 디스크 일체형 PDP TV
LG전자



LG전자의 세계 최초로 하드디스크를 내장한 HDR(Hard Disk Recorder) PDP TV는 일반 PC 저장용량의 2~3배인 160GB 하드디스크를 채용해 HD(High Definition)급 방송을 PDP TV에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제품은 별도의 저장매체 없이 HD급 방송을 최대 13시간까지, 아날로그 방송은 62시간까지 녹화 가능할 뿐 아니라, TV를 켜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1시간 분량이 녹화되는 '타임시프트(Time Shift)' 기능을 적용, 생방송을 잠시 멈췄다 볼 수 있어 방송 시청도중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도 끊김없이 연속 시청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난시청 지역에서도 선명한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5세대 수신칩을 채용했으며, 2세대 「XD Engine」을 탑재해 디지털 신호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올해 「CES 혁신상」, 「iF 디자인상」, 「Reddot 디자인상」등 세계적인 디자인상을 휩쓸어 품질 뿐 아니라 디자인 경쟁력까지 인정받은 제품이다.

엠비라이트(Ambilight) 플랫 TV
필립스전자



필립스의 '엠비라이트(Ambilight)' 플랫TV는 TV 자체의 화질은 물론, 시청자의 시청 환경을 최적화하도록 세계 최초로 개발된 TV이다.

엠비라이트 플랫TV는 첨단 픽셀 플러스(Pixel Plus) 기술을 통해 TV 화면의 선명도를 극대화하면서도, 빨강, 파랑, 초록, 주황 등 화면 색조를 감지하여 이와 동일한 조명을 TV 가장자리에서 벽면을 향해 자동으로 투사하는 지능형 TV이다. 화면이 푸른 해변이나 하늘을 비추면 파란색 조명을, 노란 낙엽이 흩날리는 가로 풍경을 비추면 노란색 조명을, 붉은 색 용암이 분출하는 화산을 비추면 빨간색 조명을, 눈 덮인 스키장의 풍광을 비추면 하얀색 조명을 스스로 연출한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엠비라이트 플랫TV는 기존 모델에 비해 화면의 다양한 색조에 따라 별도의 조명이 화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다르게 투사되도록 설계되었다. 기존 모델의 경우, 하얀 설원과 푸른 하늘을 동시에 비추면 하얀색이나 파란색 중 우세한 색조 한 가지만 조명을 투사하는데 비해, 이번 모델은 화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화면 구성에 따라 하얀색과 파란색을 별도로 투사해 더욱 실감나는 영상을 즐길 수 있다.

고부가가치 신개발 우수 국산 전자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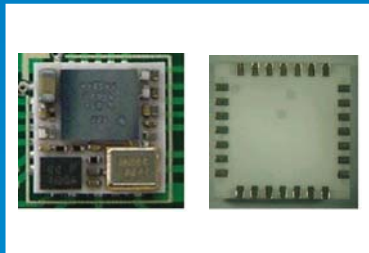
모바일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엠텍비전



모바일 멀티미디어 프로세서 MV8602는 MPEG4 멀티미디어 동영상의 녹화 및 재생 기능을 하드웨어 기반으로 구현해 고성능 및 고속처리 능력을 갖추었으며, 비디오 텔레포니 기능을 완벽히 구현 하였다. 또한 기존 제품에 대비해 60% 수준의 전력 소비를 줄이고 칩의 크기를 상당 부분 줄여 휴대폰의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V8602는 휴대용 전자 제품(휴대폰 등)에 가장 효율적으로 카메라 기능, 비디오/오디오 녹화, 재생 3D Graphic 가속 기능과 S/W Application Processing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 특화된 집적회로 제품이다. 특히, 휴대폰의 메인 프로세서의 부하를 최소화 하면서 초당 30 프레임의 역동적인 프리뷰를 제공하며, 하드웨어 기반의 실시간 JPEG 압축을 수행하고 캡코더 수준의 비디오 데이터 처리 및 각종 S/W Application Processing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블루투스 모듈 필코전자



본 제품은 블루투스 모듈로서 블루투스 인증을 받은 칩셋으로 LTCC (Low Temperature Co-firing Ceramics) 기판 내에 filter와 balun을 내장하여 휴대폰, PDA 등 휴대정보통신용 단말기의 요구에 맞게 크기를 소형화시킨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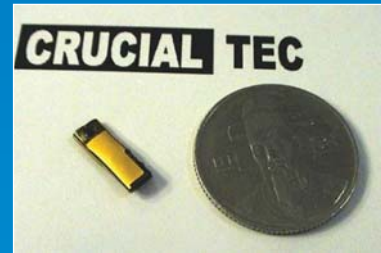
통신방식은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여 간섭이나 혼신을 막기 위해 주파수 호핑(1초 동안 1,600회)을 채용, 변조방식은 2값 주파수 변조방식(GFSK : Gaussian Frequency Shift Keying)이다.

음성 통신용으로 64kbps의 채널 3개, 데이터 통신용으로 최대 723.2/57.6 kbps (비대칭), 433.9kbps (대칭)를 사용한다.

"피코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제일 먼저 마스터가 된 1대의 기기를 중심으로 최대 7대의 기기의 접속이 가능하다.

마스터 및 슬레이브는 동시에 다른 피코넷의 슬레이브가 될 수 있으며, 최대 10개의 피코넷으로 스캐터 넷을 구성하여 최대 71대의 디바이스가 동시에 통신이 가능하다.

광 조이스틱 크루셜텍



본 제품은 크루셜텍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Optic Design 및 나노 광학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 원천 기술 그 자체는 기술적으로 기존에 널리 알려진 광 마우스와 유사한 구조이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구조 및 원리를 가진 하더라도 광학구조가 갖는 어려움을 당사만의 독자 기술로 극복하고 우수한 기능이 구현되며 초소형 모듈로 제작된 제품으로써 세계최초 신개념의 제품이다.

광 조이스틱은 휴대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의 차세대 포인팅 장치로서 개발되었으며, 실장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두께를 1mm 내외로 설계하였다. 이는 휴대폰의 메인보드와 휴대폰 프론트 커버 사이의 공간이 1mm 내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에 쉽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1mm 두께가 필요하다. 당사는 휴대폰 관련 새로운 부품의 개발 경험과 다수의 휴대폰 모듈 적용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당사 고유의 보유 기술인 나노 광학 기술을 집약하여 이 제품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